

2023년의 영국: 글로벌 금융 허브로서의 중추적 역할

본 보고서는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이 가입한 'WAIFC(World Alliance of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s)' 회원사인 theCityUK에서 2024. 1. 발표한 'Key facts about the UK as an international financial centre 2023' 번역본입니다.

원본출처:

<https://www.thecityuk.com/our-work/key-facts-about-the-uk-as-an-international-financial-centre-2023/>

(TheCityUK 홈페이지)

Copyright January 2024 theCityUK. All rights reserved.

TheCityUK에 대하여

TheCityUK는 영국에 기반을 둔 금융 및 관련 전문 서비스를 대표하는 산업 주도 단체임. 금융 및 관련 서비스 생태계의 성장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회원사들의 발전을 지원함. 이를 위해 영국 및 전세계적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며, 장기적 경제 성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함. 금융 산업은 영국의 총 경제생산의 12% 이상을 차지하고 약 250만명 정도를 고용하고 있으며, 이 중 3분의 2는 런던 외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음. 금융 산업은 영국에서 가장 큰 순수출을 기록하고 있는 산업으로, 다른 모든 순수출을 기록하는 산업들의 무역 흑자를 합친 것보다 더 큰 흑자를 기록하고 있음. 또한 가장 많은 세수가 걷히는 산업으로서,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미래를 위한 저축, 주택 구입, 사업 투자, 위험 관리 및 보호 등에 기여하고 있음.

목차

- 머리말
- 개요
- 영국 금융 및 관련 전문 서비스의 중추적인 역할
- 런던 및 영국의 국제 금융 시장
 - 은행업
 - 보험시장
 - 주식 및 채권시장
 - 자산 운용
 - 파생상품 거래
 - 상품 거래
- 전문 금융 서비스 분야에서 영국의 역할
 - 녹색 금융
 - 이슬람 금융
 - 핀테크
 - 해양 산업 분야
 - 인프라 투자
- 세계적인 전문 서비스 제공자로서 런던과 영국의 역할
 - 법률 서비스
 - 회계 서비스
 - 경영 컨설팅
 - 금융 서비스 교육 및 훈련
- 결론
- 국제 프로그램
- 참고문헌

머리말

선도적인 국제 금융 중심지로서 영국의 역할을 다루는 보고서가 격동의 12개월을 지나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때에 발표되었습니다. 2023년 영국은 지속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를 겪었으며, 2024년 경기 전망 또한 상당히 암울한 상태입니다. 더욱이 영국의 총선이 임박했고, 미국과 EU와 같은 주요 교역국 또한 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되는 정치적, 경제적 변화 속에서도 영국의 금융 및 관련 전문 서비스 산업은 회복력과 대응력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며 국제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금융 서비스 수출국가이며, 금융 서비스 순수출국(산업 수출에서 수입을 뺀 수치)으로는 가장 큰 국가입니다.

영국은 경제 규모가 큰 국가들 중 GDP 대비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91%). 금융 서비스의 여러 전문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외환 거래 및 해외 은행 대출과 같은 많은 국제 금융 시장에서 거래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핀테크 중심지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핀테크에 대해 전세계적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영국의 핀테크 기업들은 2022년에 나머지 EMEA (유럽, 중동 및 아프리카)의 핀테크 기업들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자금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통계에 초점을 맞춘 이번 연구는 영국의 국제 지향적인 금융 및 관련 전문 서비스 부문의 심도 있고 다양한 면모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목표는 금융 산업이 영국의 국제 경쟁력에 기여하는 바를 강조하는 동시에, 급변하는 세계에서 견고한 금융 및 관련 전문 서비스 산업이 제공하는 이점이 반드시 영구적인 것은 아니며, 따라서 더 나아가 경제와 사회의 이익을 위해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을 독자들에게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Anjalika Bardalai

TheCityUK 수석경제학자 & 연구책임자

개요

- 영국은 세계 최고의 국제 금융 및 관련 전문 서비스 허브 중 하나이며, 그 중심에는 런던이 있음. 이 보고서는 최신 연간 데이터를 사용하여 국제 금융 중심지로서 영국의 역할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지표와 시장을 살펴봄.
- 2022년 영국의 금융 및 관련 전문 서비스 무역 흑자는 1,136억 달러(920억 파운드)로 추정됨. 수입 대비 수출 규모는 이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높다는 것을 보여줌.
- 영국은 여러 금융 시장에서 세계 최고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음. 단적으로, 영국은 전 세계 해외 은행 대출 총액의 14%를 차지하고 있음. 런던은 외국계 은행의 거점으로서 약 170개의 외국계 은행 또는 지점이 런던에 위치해 있음.
- 영국 외환 시장에서는 미국보다 약 2배 많은 미국 달러가 거래됨. 전반적으로 영국은 전 세계 외환 거래량의 38%를 차지하고 있음.
- 영국의 보험 산업은 유럽에서 가장 큰 규모이자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임. 영국의 보험료 수준은 유럽 선진국 보험료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음.
- 영국은 2022년 운용 자산이 2조 6,000억 달러(한화 약 2,100조 원)에 달하는 유럽에서 가장 큰 연기금 운용 국가임.
- 글로벌 주식 거래의 중심지로서 런던의 중요성은 2023년 9월 기준, 런던 증권거래소(LSE)에 상장된 307개의 외국 기업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런던은 전 세계 상위 5개 거래소에 이름을 올렸음.
- 영국은 2022년 말 기준 GDP 대비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90.6%로 주요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임. 2023년 9월 기준 전 세계 주식 시가총액에서 LSE가 차지하는 비중은 3.2%임.
- 런던은 뉴욕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헤지펀드 운용 센터임. 영국은 2022년 헤지펀드 부문에서 약 3,000억 파운드(3,700억 달러)의 운용 자산(전 세계 자산의 약 8%)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됨.
- 영국 사모펀드 시장은 미국을 제외하고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시장임. 영국 사모펀드는 2022년에 유럽에서 가장 큰 규모인 552억 달러(447억 파운드 상당)를 투자했음.
- 영국은 여러 전문 금융 서비스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이슬람 금융과 해양 금융 분야는 모두 영국이 발전을 선도하고 있는 분야임.
- 영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핀테크 투자 국가이며,

유럽에서 가장 매력적인 핀테크 투자처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2022년 현재 영국의 핀테크 부문은 1,600개 이상의 회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2030년 까지 그 수가 두 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핀테크 업계에는 76,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종사하고 있음.

- 영국은 유럽에서 가장 규모가 큰 법률 서비스 시장이며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시장임. 영국에는 약 40개 지역에서 200개 이상의 외국 로펌이 활동하는 등 수많은 국제 로펌들이 자리 잡고 있음.
- 영국에 기반을 둔 다양한 기관이 국제적으로 금융 및 관련 전문 서비스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함. 영국의 3개 대학은 회계 및 재무 과정을 전문으로 하는 세계 10대 고등 교육 기관에 속해 있음.

영국 금융 및 관련 전문 서비스의 증추적인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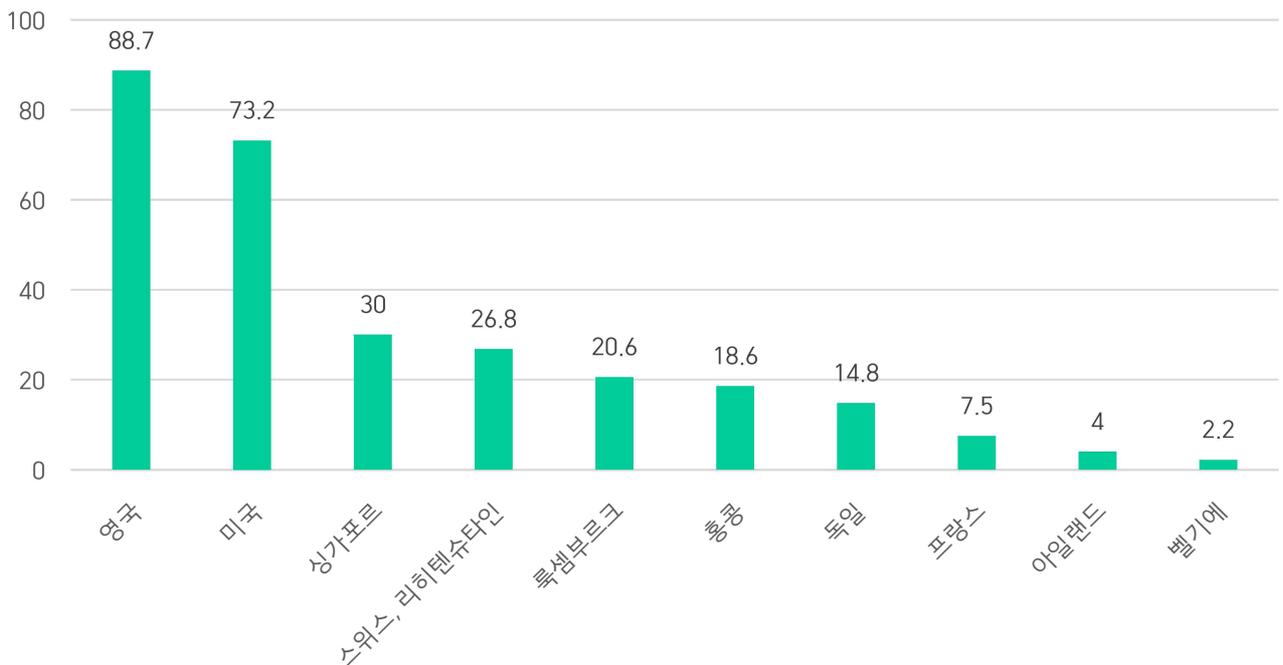
영국은 국제 도매 금융의 주요 글로벌 허브이며, 따라서 금융 및 관련 전문 서비스 산업은 영국의 전략적 국가 자산임. 영국의 금융 및 관련 전문 서비스 산업은 전국적으로 약 250만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그 중 3분의 2가 런던 외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고, 막대한 세수를 창출하며, 상당한 서비스 무역 흑자에 기여하고 있음. 또한 영국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국내 투자를 확보하여 영국 전역의 비즈니스에 자금을 지원하고, 기술 및 생명 과학과 같은 전략적, 미래 지향적인 산업의 핵심 허브로 자리매김시켰음.

전 세계에서 금융 서비스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 영국

영국의 금융 서비스 무역수지 흑자는 2022년에 총 887억 달러(718억 파운드 상당)로 미국(732억 달러, 593억 파운드)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됨(자세한 내용은 그림 1 참조). 법률, 회계, 경영 컨설팅 서비스 등 관련 전문 서비스의 무역수지 흑자 추정치까지 고려하면 금융 및 관련 전문 서비스의 총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약 1,136억 달러(920억 파운드 상당)로 증가함.

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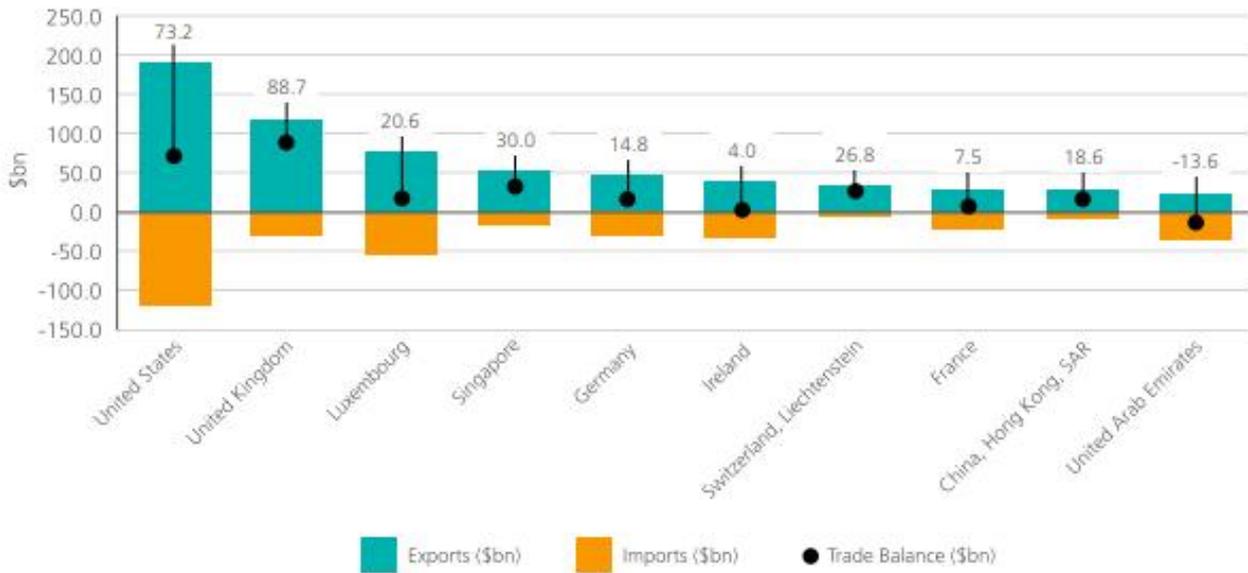
세계 최대 금융 서비스 순 수출국, \$bn, 2022년



(출처: TheCityUK calculations based on UNCTAD data)

2022년, 영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금융 서비스 수출국이었으며, 룩셈부르크, 싱가포르, 독일보다 앞섰음. 영국의 금융 서비스 수출액은 총 1171억 달러(영국 파운드 약 949억 파운드)에 달했으며, 이는 미국의 금융 서비스 수출액 1904억 달러(영국 파운드 약 1542억 파운드)와 비교됨 (자세한 내용은 그림 2를 참조).

그림 2 : 세계 최대 금융 서비스 수출국의 무역 수치, \$bn, 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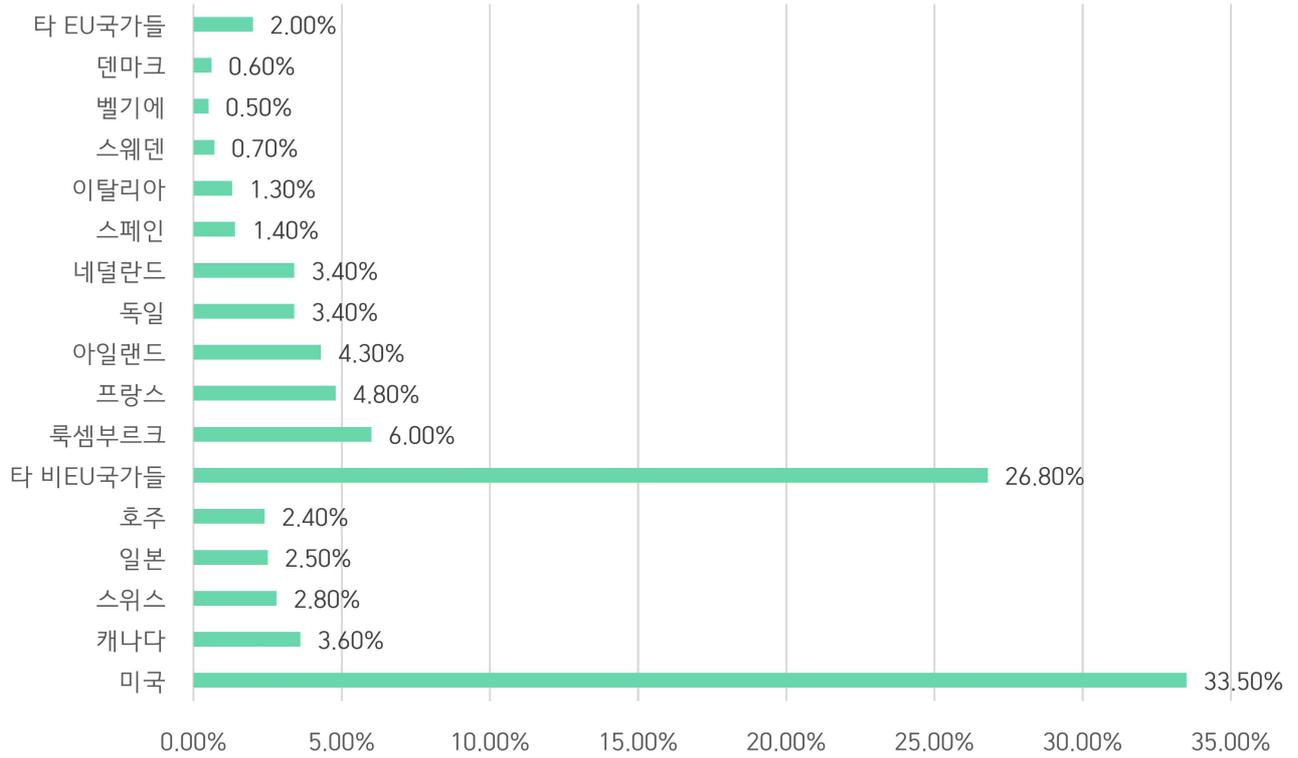


(출처: TheCityUK calculations based on UNCTAD data)

영국의 금융 서비스 수출의 주요 대상 국가는 미국(영국 전체 금융 서비스 수출의 34%)과 EU(28%)임(자세한 내용은 그림 3을 참조).

그림3

국가별 영국 금융 서비스 수출, 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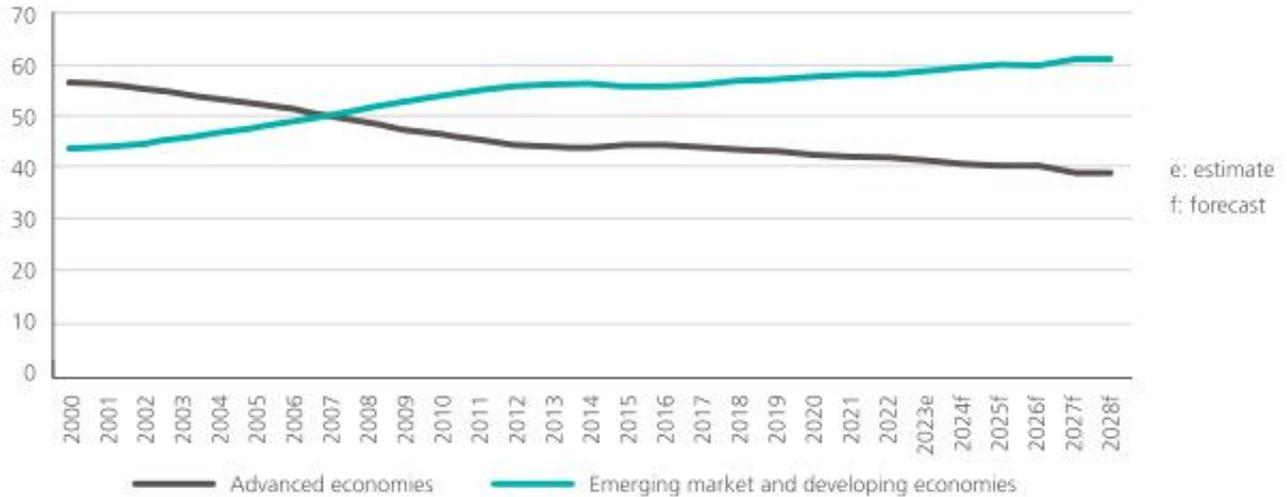


(출처:TheCityUK calculations based on ONS data)

영국은 선진국에서 금융 및 관련 전문 서비스 비즈니스를 관리하는 데 있어 뛰어난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

개발도상국은 산업 개발, 인프라 투자, 빈곤 감소, 금융 포용 촉진에서 더 많은 진전을 이루기 위해 금융 서비스가 필요함. 세계 경제에서 신흥 시장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들 국가와의 무역 규모는 상당한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그림 4). 영국은 여러 국제 금융 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이들을 지원할 수 있었음.

그림4 : 세계 GDP(구매력 평가 기준) %



(출처:TheCityUK calculations based on International Monetary Fund data)

최고의 글로벌 금융 중심지 중 하나

런던은 일반적으로 full-service, 즉 모든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 세계 단 두 곳의 국제 금융 서비스 허브 중 하나로 꼽히며, 다른 하나는 뉴욕임. 실제로 전 세계 금융 중심지 순위를 매기는 데 널리 사용되는 Z/Yen의 글로벌 금융 중심지 지수에 따르면, 런던은 현재 뉴욕에 이어 국제 금융 서비스 중심지 2위를 차지하고 있음. 또한, 영국은 New Financial에서 발행한 최신 글로벌 금융 중심지 지수 보고서에서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했음. 한편, 국제 금융 센터의 경쟁력을 조사하는 City of London Corporation의 연구에 따르면 2022년 런던과 뉴욕이 전 세계 주요 금융 센터로 1위를 차지했음. 런던의 허브로서의 역할은 대부분 은행, 보험, 펀드 관리, 증권, 파생상품, 외환 전문성, 숙련된 노동력의 공존과 더불어 발달된 시장 인프라 및 우수한 관련 전문 서비스(법률, 회계, 경영 컨설팅) 클러스터에 기반을 두고 있음. 국제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금융 센터의 수는 증가하고 있는데, Z/Yen의 연구에 따르면 금융 중심지는 깊이와 다양성을 모두 갖춘 금융 중심지(예: 상하이, 싱가포르, 도쿄, 프랑크푸르트), 광범위한 금융 중심지(예: 파리, 서울, 워싱턴 DC), 특정 전문성을 갖춘 금융 중심지(예: 베이징, 홍콩, 두바이, 룩셈부르크) 등 다양한 하위 카테고리 분류할 수 있음. 틈새 시장을 개척하거나 특정 상품을 제공하려는 신흥 국제 금융 중심지에서는 잘 타겟팅된 특화 전략 또는 지역 특화 전략이 성공을 가져올 수 있음.

지역 및 특화된 국제 금융센터는 보다 혁신적이고 경쟁적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더 큰 규모의 금융 센터에 도전하고 있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끊임없는 도전의 일환은 경쟁 우위의 기반을 재정립하는 데서 비롯됨. 언어, 법규, 문화 등 요소는 경쟁력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음. 규제 및 감독의 일관성, 조세 정책, 풍부한 인재 풀, 지속 가능한 금융 정책의 의지, 정치적 지지와 지원도 이러한 요소의 일부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차별화된 경쟁력을 창출할 수 있음. 글로벌 무역과 투자가 새로운 방향으로 성장함에 따라 국제 금융 센터는 새로운 요구와 아이디어를 반영하기 위해 변화해야 할 것임.

다른 금융 중심지와와의 협력은 영국에 기반을 둔 기업들의 국제 네트워크를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이를 통해 해외 비즈니스를 확장할 수 있었음. 그 과정에서 영국은 해외 기업들에게 시장과 전문 지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많은 개발도상국 금융센터에게 모범이 되었음. 이는 더욱 발전되고 성장하는 글로벌 경제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음.

그림5 : 금융 중심지 지표, 국가별 점유율(%)

	영국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스위스	싱가포르	일본	중국	홍콩	타국가
국가 간 은행 대출 (2023년 2분기)	14.4%	9.2%	3.7%	12.7%	9.7%	2.6%	2.2%	11.4%	4.0%	4.8%	25.3%
외환 거래 매출액 (2022년 4월)	38.1%	19.4%	1.7%	2.2%	1.9%	3.6%	9.4%	4.4%	1.6%	7.0%	10.7%
이자율장외 파생상품 거래량 (2022년 4월)	45.5%	29.3%	1.2%	3.5%	4.7%	0.3%	2.7%	0.9%	0.2%	5.6%	6.1%
보험 프리미엄 (2021년 말)	5.4%	43.7%	2.5%	3.9%	3.6%	0.8%	0.7%	5.0%	10.3%	1.0%	23.1%
국제 채무증권 잔액 (23년 1분기)	11.9%	8.6%	4.4%	4.8%	4.6%	0.5%	0.8%	1.9%	0.8%	1.2%	60.5%

(출처:Source: TheCityUK calculations based on data from the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and Swiss Re Institute)

그림6 : 영국 금융 시장 점유율(%)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국가 간 은행대출	18%	17%	16%	17%	17%	16%	15%	16%	15%	14%
외환 거래 매출액	--	--	37%	--	--	43%	--	--	38%	--
이자율장외 파생상품 거래량	--	--	39%	--	--	46%	--	--	46%	--
기존 펀드 운용	7%	7%	7%	6%	6%	5%	--	--	--	--

*2023년 2분기 국가 간 은행대출

(출처:TheCityUK calculations based on data from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Willis Towers Watson, Investment Company Institute, Insurance Europe, The General Insurance Association of Japan, The Life Insurance Association of Japan, 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 and International Monetary Fund)

세계 국제 금융 센터 연합(WAIFC)

TheCityUK는 2018년에 설립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국제 금융 센터 그룹인 세계 국제 금융 센터 연합(WAIFC)의 회원임. WAIFC는 다양한 국제 금융 센터가 인사이트와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협력을 추구하며, 국제 금융 센터가 경제 성장을 가장 잘 뒷받침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유용한 포럼을 개최함.

유럽, 북미, 유라시아, 아시아 태평양, 중동 및 아프리카의 국제 금융센터가 WAIFC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회원들은 국제 금융센터가 핀테크 솔루션 개발, 친환경 투자 및 인프라 프로젝트, 중소기업 자금 지원, 경제 자금 조달 등과 같은 과정에서 금융센터의 역할을 어떻게 촉진하고 있는지를 연구하는 일련의 프로젝트를 함께 수행해 왔음.

WAIFC는 전 세계 국제 금융 센터에 위치한 수많은 전문 지식과 역량을 한데 모아 광범위한 경제 개발 목표를 촉진하고 산업의 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함.

런던 및 영국의 국제 금융 시장

은행업

영국의 탄탄한 국제적 입지를 보여주는 지표는 다음과 같음:

산업규모: 2023년 3분기 말 영국 은행 부문 자산은 총 11.6조 달러(9.3조 파운드)로, 프랑스(13조 달러)에 이어 세계 6위, 유럽 3위 규모이며 독일(11.6조 달러)과 비슷하고 이탈리아(4.1조 달러)보다 앞섬(자세한 내용은 그림 7 참조). 영국 은행의 자산 중 약 47%는 파운드화로 표시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외화로 표시되어 있음.

그림 7 : 최대 금융 센터의 자산, \$bn, 2023년 3분기 기준

금융 센터	최대 금융 센터의 자산, \$bn, 2023년 3분기 기준
중국*	64,862
미국	22,906
프랑스	12,984
일본*	12,101
독일	11,633
영국	11,612
이탈리아	4,148

*2023년 2분기 측정

(출처:National Central Banks)

국가 간 은행대출: 영국은 2023년 2분기 국가 간 은행 대출의 14%를 차지한 세계 최대의 국제 은행업무 중심지임. 또한 해외 차입의 최대 중심지(16%)이기도 함(자세한 내용은 그림 8 참조). 런던은 외국계 은행의 중심지로, 약 170개의 외국계 은행 또는 지점이 위치해 있음.

그림8 : 세계 은행 대출 및 차입, 2023년 2분기 점유율(%)

국가	대출	차입
영국	14%	16%
프랑스	13%	15%
일본	11%	4%
독일	10%	10%
미국	9%	13%
홍콩	5%	4%
중국	4%	4%
캐나다	4%	3%
네덜란드	3%	3%
스위스	3%	3%
스페인	2%	2%
싱가포르	2%	2%
이탈리아	2%	2%
룩셈부르크	2%	1%
호주	1%	2%
타 국가들	15%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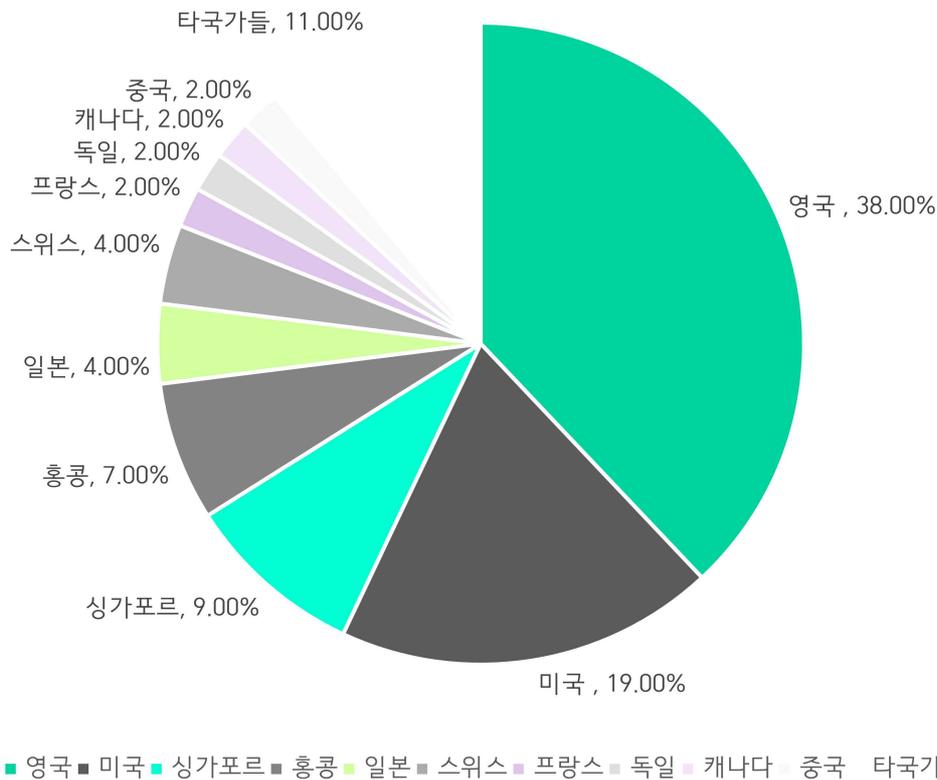
(출처:TheCityUK calculations based on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data)

사모 및 투자 은행업: 런던은 사모 및 투자 은행업의 가장 중요한 중심지 중 하나임.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 삭스, JP 모건, 모건 스탠리, RBC Capital Markets, UBS 등 많은 국제 은행이 영국에서 사모 및 투자 은행업 사업을 하고 있음.

국제결제은행(BIS)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영국은 2022년 4월 전 세계 외환 거래의 38%를 차지하여 미국(19%), 싱가포르(9%), 홍콩(7%), 일본(4%)을 훨씬 앞질렀음(자세한 내용은 그림 9 참조). 2022년 4월 영국의 일평균 거래액 3조 8천억 달러(2.9조 파운드 상당)의 대부분이 런던에서 거래되었고 영국 외환 시장에서는 미국보다 약 2배 더 많은 미국 달러가 거래되고 있음.

런던은 역외 위안화 거래의 글로벌 중심지이자 중화권 외 지역에서는 여전히 최대 위안화 거래 센터이자 두 번째로 큰 결제 센터임. 런던은 2023년 6월 전체 역외 위안화 거래의 38%를 차지했으며, 이는 2022년 6월보다 1.5% 감소한 수치임.

그림 9 : 외환 거래 점유율, 2022년 4월 기준



(출처: TheCityUK calculations based on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data)

보험시장

영국 보험 산업은 유럽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산업으로, 2022년 보험료는 약 3630억 달러(2940억 파운드 상당)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그림 10). 이 산업은 보험 회사(전문 런던 마켓 포함), Lloyd's 마켓, 중개인, 다양한 전문 지원 직업 및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음.

영국 보험 시장의 탄탄한 국제적 입지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알 수 있음:

- 영국은 2022년 운용 자산이 2조 6,000억 달러(한화 약 2,100조 원)에 달하는 유럽 최대의 연금 기금 운용국임
- 2022년, 영국 보험 및 장기 저축 산업은 유럽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며 영국 보험사 협회(ABI) 회원사가 1조 5천억 파운드(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관리하는 등 영국 경제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세계 최대 보험사 순위에서 영국 기업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음
- 영국은 2022년 전 세계 보험료의 5.4%, 신흥 EMEA지역 보험료의 약 4분의 1을 차지했음

그림10 : 최대 보험 시장, \$bn, 2022년



(출처: TheCityUK calculations based on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data)

영국의 민간 재보험 및 보험 시장은 가장 까다롭고 높은 수준의 리스크를 다루는 특수 민간보험을 제공하는 데 있어 세계를 선도하고 있음. 런던 마켓은 런던 중심부에 위치한 영국 보험 및 재보험 부문의 일부분임. 주로 일반 보험과 재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노출 위험이 높은 리스크를 포함함. 또한 런던 마켓은 48,0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매년 1,200억 달러 이상의 보험료를 벌어들이는 민간 및 특수 위험에 대한 세계 최대의 허브임. 이 시장 전반을 아우르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최근 자료에 따르면, 런던은 2020년 전 세계 총 보험액의 7.6%에 해당하는 840억 달러(613억 파운드 상당)를 차지하며 여전히 세계 최대의 보험 및 재보험 허브로 평가되고 있음. 런던 마켓은 런던시 GDP의 24%를 차지하며 2020년 영국 경제에 390억 파운드(534억 달러 상당) 가치의 경제적 이익을 가져왔음. 또한 런던은 특수 위험 보험 시장 점유율이 42%에 달하는 복합 위험시장의 글로벌 중심지임. 2020년 피보험자의 소재지별 총 보험료를 기준으로 런던 마켓의 비즈니스 68%가 영국과 아일랜드 외의 기업에서 발생했음. International Underwriting Association of London(IUA, 런던 소재 보험 및 재보험사 대표 기구)의 데이터에 따르면, 런던에서 활동하는 non-Lloyd's international 및 도매 보험 및 재보험사로 구성된 런던 기업 마켓은 2013~2022년 연평균 6.6%의 보험료 성장률을 보이며 2022년 약 440억 파운드(543억 달러 상당)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그림 11).

그림11

런던 기업 마켓 보험료, £bn



*'Controlled'는 런던 외 지역에서 발생하지만 런던 소재 보험사(예: 런던 기업 마켓)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를 의미함

(출처:International Underwriting Association of London)

Lloyd's of London은 런던의 보험 및 재보험 사업을 위한 기업이자 거래소임. 2022년 Lloyd's의 총 보험료 수입은 467억 파운드(미화 577억 달러 상당)에 달함. 지난 5년 동안 Lloyd's의 총 보험료 수입은 연평균 7.4% 성장했음.

주식 및 채권시장

주식시장

글로벌 주식시장의 중심지로서 런던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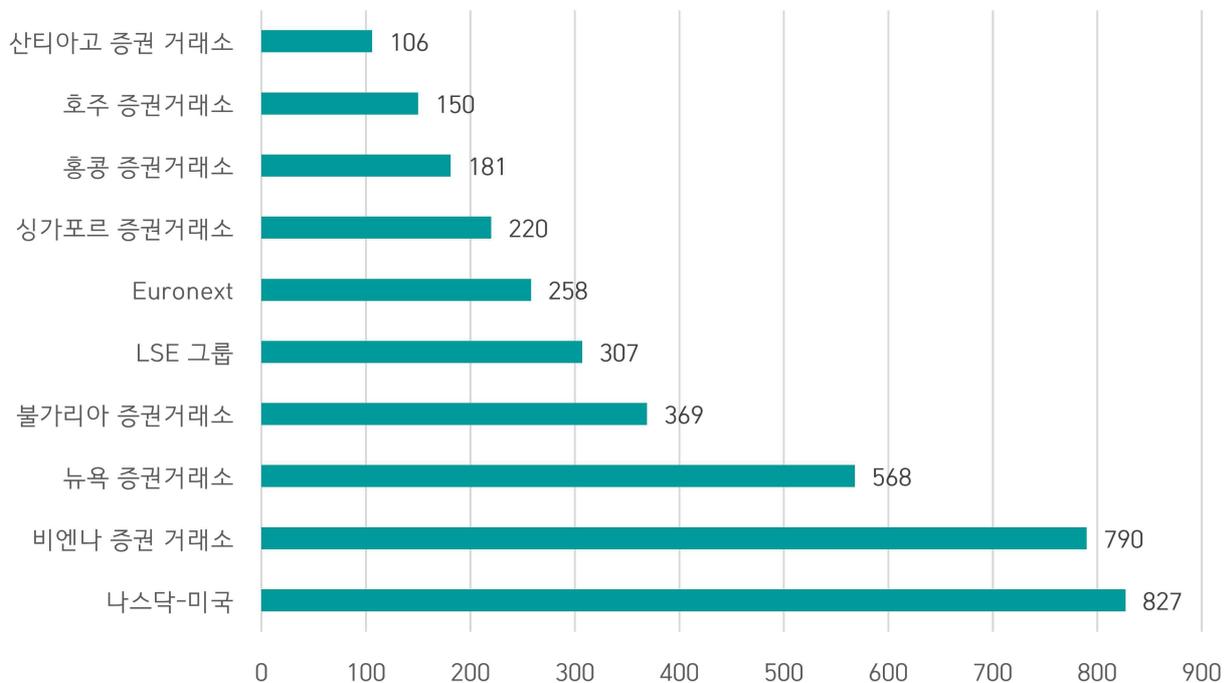
- 2023년 9월 기준 307개의 외국 기업이 LSE에 상장되어 런던은 전 세계 상위 5개 거래소에 이름을 올렸음(자세한 내용은 그림 12 참조).
- 2023년에는 23개 기업이 10억 파운드(12억 달러 상당)에 해당하는 신규 발행 및 IPOs를 통해 자본을 조달했음.
- 2023년 9월 기준 전 세계 주식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3.2%임.
- 영국은 2022년 말 기준 GDP 대비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로, 90.6%에 달함.

- LSE의 하위 시장인 대체투자시장(AIM)은 소규모 성장 기업이 주식 시장을 통해 자본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함. AIM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1995년 이후 약 4,000개의 기업이 AIM에 상장되었고 이 기업들은 79개국에서 1,300억 파운드의 자금을 조달했음. 2021년에 AIM은 유럽 신흥 시장 자금의 절반 이상(53%)을 제공하기도 하였음.

그림12

상장 외국 기업 수 기준 상위 10개 증권 거래소, 2023년 9월



(출처:World Federation of Exchanges)

채권시장

영국의 탄탄한 국내 채권 시장은 국제 채권 발행 및 거래의 주요 중심지로서 런던의 꾸준한 성장세를 통해 발전하고 있음. 2023년 1분기 말 기준 영국의 국제채권 발행액은 약 3조 3,000억 달러(2.7조 파운드 상당)로 전 세계 총액의 12%에 해당하는 세계 최대 규모를 기록했고 이 중 유로채권이 27.7%를 차지했음.

자산 운용

2022년 영국의 운용 자산은 전년 대비 11% 감소한 10조 3,000억 파운드(12조 7,000억 달러 상당)를 기록했다.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 운용 시장 중 하나임. 영국과 외국 기업이 광범위하게 혼합되어 있고, 해외 시장에 대한 주식 및 채권 투자가 각각 78.2%와 60.3%에 달하며, 투자협회(IA) 회원사 중 해외 고객을 대신해 총 5조2천억 파운드(4조2천억 파운드 상당)의 자산을 운용하는 등 국제적 성향이 강한 산업임. 영국의 국제적 위상을 보여주는 주요 지표는 다음과 같음:

- **연기금 자산:** 영국 연기금 자산은 2022년 전 세계 연기금 자산의 5.4%를 차지했으며, 이는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훨씬 앞서는 수치임. 영국의 GDP 대비 연기금 자산 비율은 80.3%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음.
- **뮤추얼 펀드:** 2023년 2분기 영국 뮤추얼 펀드의 운용 규모는 1조 9,000억 달러(1.5조 파운드)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유럽에서는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독일, 프랑스에 이어 5번째로 높음.
- **보험 기금:** 2021년(최신 데이터)에 영국 보험 업계는 미국,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기금을 운용하고 있음.

그림13: 기존 투자 관리 자산, \$bn

	연기금 (2022 12월)	보험 자산 (2021년)	뮤추얼 펀드 (2023년 2분기)
미국	30,439	8,482	31,599
일본	3,099	3,700	2,078
영국	2,568	3,158	1,915
프랑스	125	901	2,412
캐나다*	2,880	NA	1,717
기타국가*	8,750	NA	25,351
합계**	47,861	NA	65,072

* 2021년 캐나다, '기타 국가'의 글로벌 보험 자산과 총 보험 자산은 제공되지 않음

헤지 펀드

런던은 뉴욕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헤지펀드 운용 중심지임. 영국은 2022년 헤지펀드 부문에서 약 3,000억 파운드(3,700억 달러)의 운용 자산(전 세계 자산의 약 8%)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됨. 영국은 유럽에서 가장 큰 헤지펀드 중심지임. 또한 영국은 관리, 프라임 브로커리지, 감사 등 헤지펀드 서비스 분야에서도 헤지펀드 서비스의 주요 중심지이기도 함.

사모 펀드

영국 사모펀드 시장은 세계 1위인 미국 다음으로 발달한 시장으로, 2022년에 사모펀드 부문에서 1조 달러(약 8,100억 파운드)를 투자한 것으로 예상됨. 영국 사모펀드는 2022년에 유럽에서 가장 많은 금액인 552억 달러(447억 파운드 상당)를 투자했음. 영국 사모펀드 업계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전 세계 8,795개 기업에 1,810억 달러(1,466억 파운드 상당)를 투자했으며, 2022년에만 1,973개 기업에 투자하였음.

영국에 본사를 둔 대상 기업들은 2022년에 330억 달러(267억 파운드 상당)를 투자받았음(그림 14). 런던은 사모펀드 투자 및 펀드 관리의 유럽 최대 중심지라 할 수 있음.

그림14: 사모펀드 투자, 유럽 상위 10개 국가, \$bn, 2022년 기준

	투자(PE 회사의 소재지)	투자(포트폴리오 회사의 소재지)
영국	55.2	33.0
프랑스	30.3	25.4
독일	11.1	15.9
스웨덴	7.2	13.3
네덜란드	6.6	12.0
이탈리아	5.9	9.8
덴마크	4.9	6.7
스페인	3.5	3.6
룩셈부르크	1.8	0.4
노르웨이	1.7	7.6

(출처:TheCityUK calculations based on Invest Europe data)

벤처 캐피탈

영국은 벤처 캐피탈의 허브임. 지난 5년 동안 유럽 벤처 캐피탈 투자 유치의 40%가 영국에서 이루어졌음. HSBC와 Dealroom의 조사에 따르면 2023년 영국 스타트업에 대한 벤처 캐피탈 투자는 총 213억 달러(172억 파운드 상당)로 전년의 313억 달러(252억 파운드 상당)에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파생상품 거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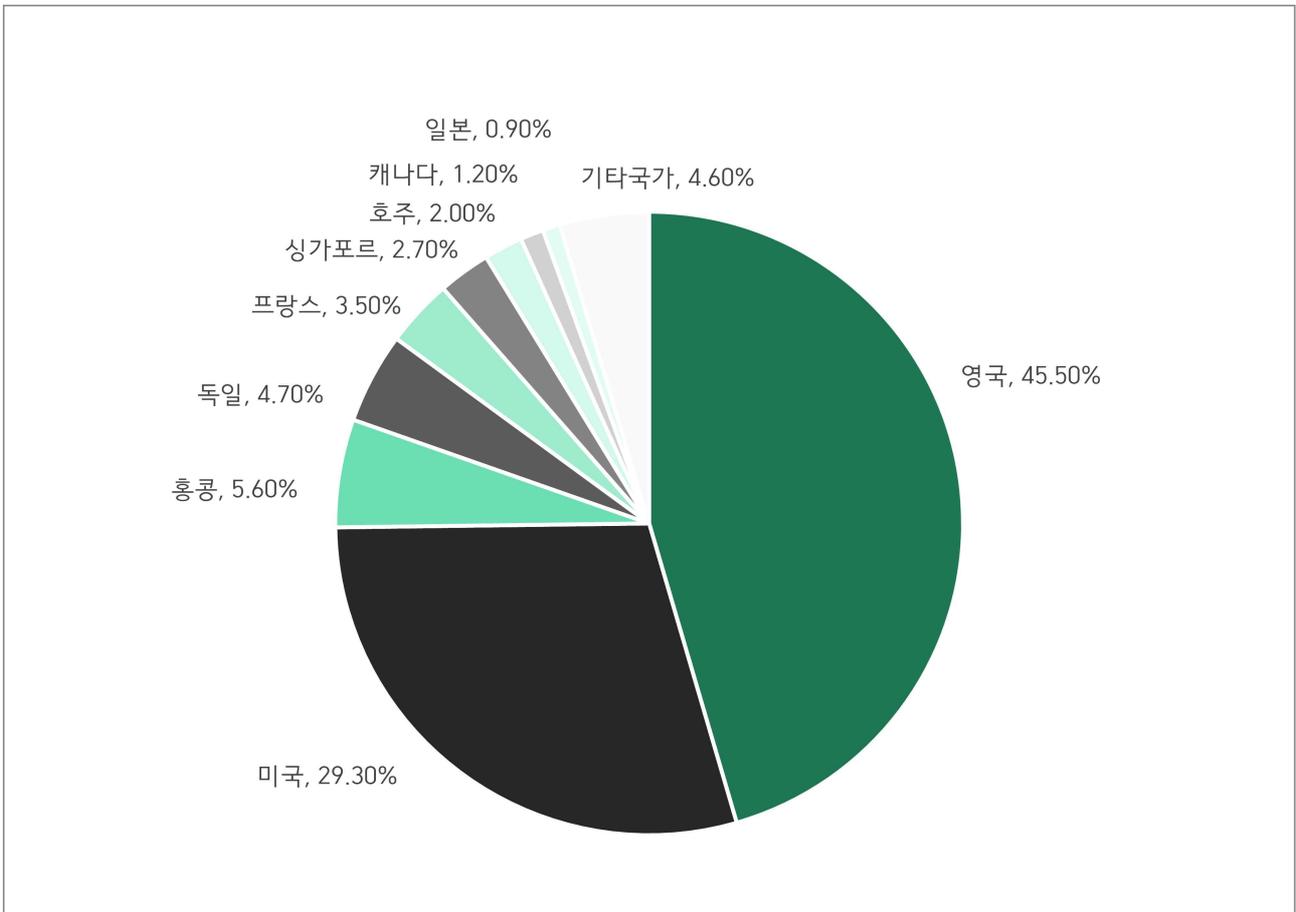
파생상품은 둘 이상의 당사자가 가치와 지불 및 인도 방법을 합의한 계약으로, 기초 자산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계약임. 파생상품의 기초 자산에는 주식, 채권, 상품, 통화 등이 포함됨.

영국은 세계 최고의 파생상품 거래 중심지 중 하나임. 국제결제은행(BIS)에서 제공하는 최신 자료에 따르면 2022년 4월 영국의 장외 금리 파생상품 거래 비중은 45.5%에 달했음. 미국만이 장외 금리 파생상품 거래의 29.3%를 차지한 유일한 다른 지역임(그림 15).

영국에는 여러 파생상품 거래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 NYSE Liffe: 단기 유로 금리 계약 거래를 위한 주요 거래소, Intercontinental Exchange group(ICE)에 속해 있음
- 런던금속거래소(LME): 주요 비철금속 거래소
- 런던국제선물거래소(ICE Futures Europe): 유럽에서 가장 크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에너지 선물 거래소, Intercontinental Exchange group(ICE)에 속해있음
- 런던증권거래소가 주관하는 여러 파생상품 시장에는 금리 선물과 같은 상품이 있음

그림15: 장외 금리 파생상품의 일평균 거래대금, 점유율, 2022년 4월 위치



(출처: TheCityUK calculations based on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data)

상품 거래

영국은 국제커피협회, 곡물거래업협회 및 국제설탕협회와 같은 여러 국제 상품 기구의 본부임. 세계 최고의 국제 금융 중심지 중 하나인 런던은 원자재를 거래하는 많은 국제 기업들뿐만 아니라 투자 은행 및 상품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기타 금융 기관들도 선호하는 장소이기도 함.

금 시장

귀금속 거래의 대부분은 런던의 장외 시장에서 이루어짐. 2022년 런던금시장 협회에서 이루어지는 금 일평균 거래량은 1,900만 온스(345억 달러, 279억 파운드 상당), 은의 일일 평균 거래량은 233만 온스(50억 달러, 41억 파운드 상당)에 달함. 런던은 또한 에너지 및 탄소 시장에서 활동하는 브로커들의 주요 활동무대이기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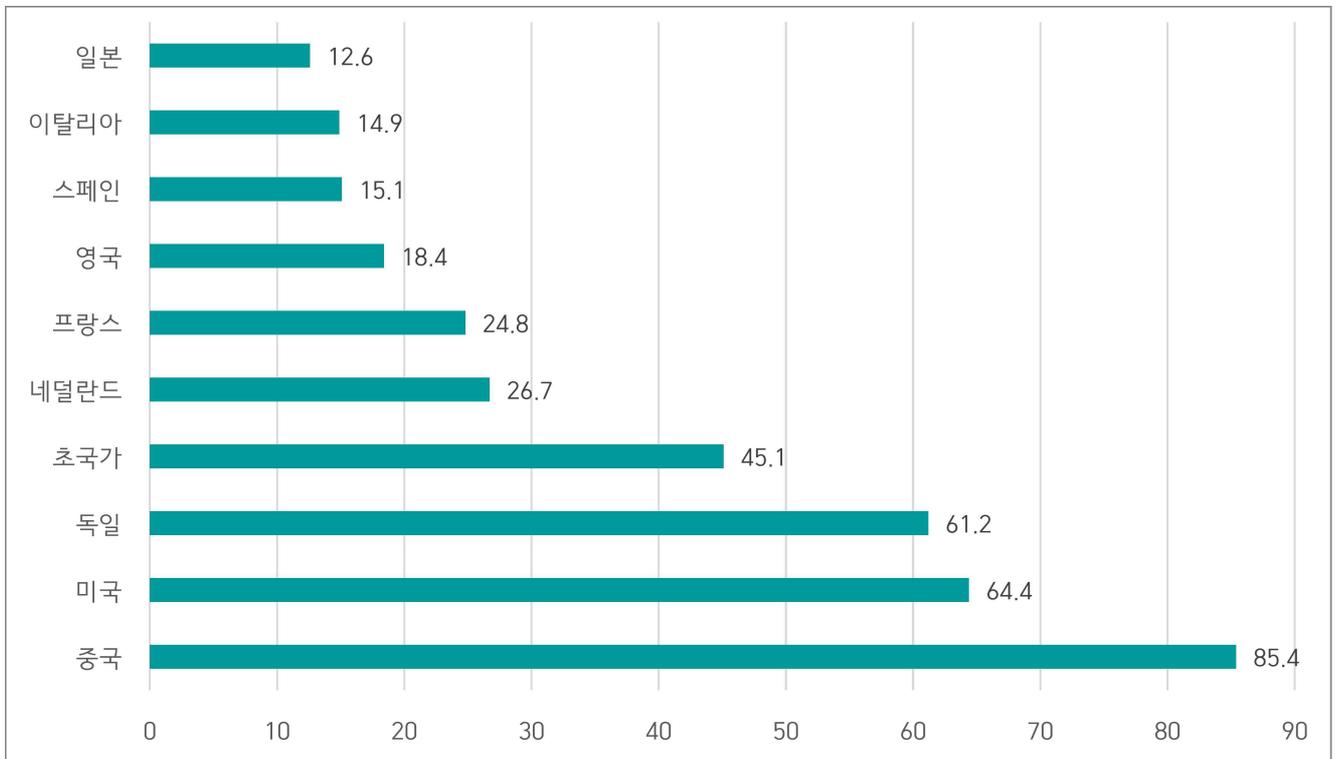
전문 금융 서비스 분야에서 영국의 역할

녹색 금융

녹색 금융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환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자본 및 운영 지출에 자금 출처를 연계하는 것임. 녹색 금융은 단순히 녹색 채권이나 펀드 그 이상을 포함하지만, 녹색 금융의 전체 스펙트럼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데이터는 아직 제공되지 않음.

국제기후채권기구(CBI)의 자료에 따르면, 녹색 금융의 가장 큰 부문인 영국의 녹색 채권 발행액은 2018년 38억 달러(29억 파운드 상당)에서 2022년 184억 달러(150억 파운드 상당)로 증가했음. 2022년 영국은 세계에서 6번째로 큰 녹색 채권 발행국(초국가적 발행국 제외)이 되었음(자세한 내용은 그림 16 참조).

그림16: 녹색채권 발행 상위 10곳, \$bn, 2022년



(출처:Climate Bonds Initiative)

2019년 런던증권거래소(LSE)의 지속가능채권시장(SBM)이 녹색채권 세그먼트를 대체했음. 이는 녹색채권 전용 부문을 개설한 최초의 주요 거래소임. SBM에는 녹색, 지속가능성 및 사회적 채권이 포함됨. 2022년 말까지 120개 이상의 발행사가 410개의 지속가능채권을 상장했으며, 약 1,980억 달러(1,604억 파운드 상당)를 조달했음. LSE는 2020년에 지속가능채권시장자문그룹(SBMAG)을 출범시켰음. SBMAG는 LSE의 지속가능채권 시장 발전을 장려하는 자문 기구로서 기능함.

런던은 풍력, 태양광, 에너지 저장 및 효율성, 기타 재생 가능한 인프라 자산에 대한 기술 및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투자 펀드인 '그린 펀드'의 글로벌 허브임. LSE의 Green Economy Mark cohort에는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친환경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Main Market과 AIM의 기업 및 펀드가 포함되어 있음. 이 그룹은 2021년 이후 자본 조달 측면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이며, 전체 런던 상장 기업의 6%를 차지함. 2021년 6월부터 2023년 6월까지 85건의 IPO와 후속 발행을 통해 총 61억 6,000만 파운드를 조달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청정 기술을 개발 및 구현, 배기가스 감축 그리고 혁신적인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에 자금을 지원하였음. 마찬가지로, 2022년 런던증권거래소에는 약 300개의 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ESG) 상장지수펀드(ETF)가 상장되었음.

녹색 금융과 탄소중립 목표의 연계는 새로운 시장의 발전과 함께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개인, 기업, 정부 등 다양한 주체들이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을 제한하고 장기적인 지구 온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고 팔 수 있는 거래 시스템인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이 바로 그 예임. (당국의 규제를 받는) 탄소배출권 시장에는 정부(또는 기타 당국)가 일부 산업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의 최대 수준을 설정한 다음, 배출되는 온실가스 1톤당 연간 탄소 배출권을 발행하는 비용 효율적인 가격 정책인 배출권 거래제(ETS)라는 메커니즘이 널리 사용되고 있음. 이러한 배출권은 경매를 통해 판매한 후 2차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2022년 4월 현재 전 세계적으로 34개의 ETS가 시행되고 있음. 중국과 EU는 각각 배출권 거래 가치와 배출권 할당량 측면에서 글로벌 선두 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영국 ETS는 브렉시트 이후 2021년 1월에 시행되었으며, 1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나타내는 UKA라는 단위 배출권을 발행하였고 배출권의 거래는 2021년 5월에 톤당 22파운드의 가격 하한선으로 시작되었음. 2022년 UKA 거래량은 81MtCO₂e로 65억 파운드(80억 달러 상당)의 가치를 창출한 반면, 2021년에는 경매된 거래량이 84MtCO₂e로 43억 파운드(59억 달러 상당)의 수익을 올렸음. UKA의 거래량과 관련하여 2022년에는 전년 대비 72% 증가한 431MtCO₂e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된 금액은 132% 증가함. 런던증권거래소는 영국 정부의 탄소 순배출량 제로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 12월에 자발적 탄소 시장을 출범시켰음. 이 시장은 법적 의무가 존재하진 않지만, 전 세계적으로 양질의 탄소 배출권을 늘리고, 대기 중 온실가스를 직접적으로 감축하는 프로젝트에 자금을 유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를 통해 런던증권거래소는 기후 변화 완화 프로젝트에 투자를 촉진하는 새로운 금융 상품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상장 탄소 펀드를 지원함으로써 이러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음.

이슬람 금융

이슬람 금융의 선도적인 서구 중심지로서 영국의 위상은 최근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 런던과 다른 영국 도시에 있는 기관들은 약 40년 동안 이슬람 금융 및 관련 전문 서비스를 제공해 왔고 또한 영국은 이슬람 금융을 위한 인프라와 환경을 지원하는 데 있어 서구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영국에서는 금융 중개업체, 자산 관리자, 보험사, 국제 법률, 회계, 컨설팅 회사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2022년 영국을 소재로 한 이슬람 은행의 자산은 65억 달러(53억 파운드 상당)였음. 영국의 이슬람 은행 자산은 전 세계 이슬람 은행 자산의 0.1%에 불과하지만, 유럽 지역의 이슬람 은행 자산 85%를 차지하며 유럽 단일 국가(터키 제외) 중 가장 많은 이슬람 은행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만함.

모든 영국 이슬람 은행은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를 위한 정부 이니셔티브를 지원하는 걸프협력회의(GCC)를 주주로 두고 있음. 대부분의 이슬람 은행은 GCC 고객에게 자산 관리 및 부동산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는 반면, 일부 기존 은행은 이슬람 상품 제공을 중단하였음.

국내 sukuk* 발행은 여전히 매우 저조하지만, 2023년 3월 현재 55개 이상의 sukuk가 런던증권거래소(LSE)에 상장되어 있으며, 발행액은 500억 달러(403억 파운드 상당)를 넘어섰음. 영국에 본사를 둔 기존 은행들은 국제 sukuk의 주요 발행 기관으로 기능하고 있음. 또한 런던금융거래소는 여러 국가의 이슬람 은행이 tawarruq** 계약을 통해 고객에게 현금을 조달하기 위해 자주 이용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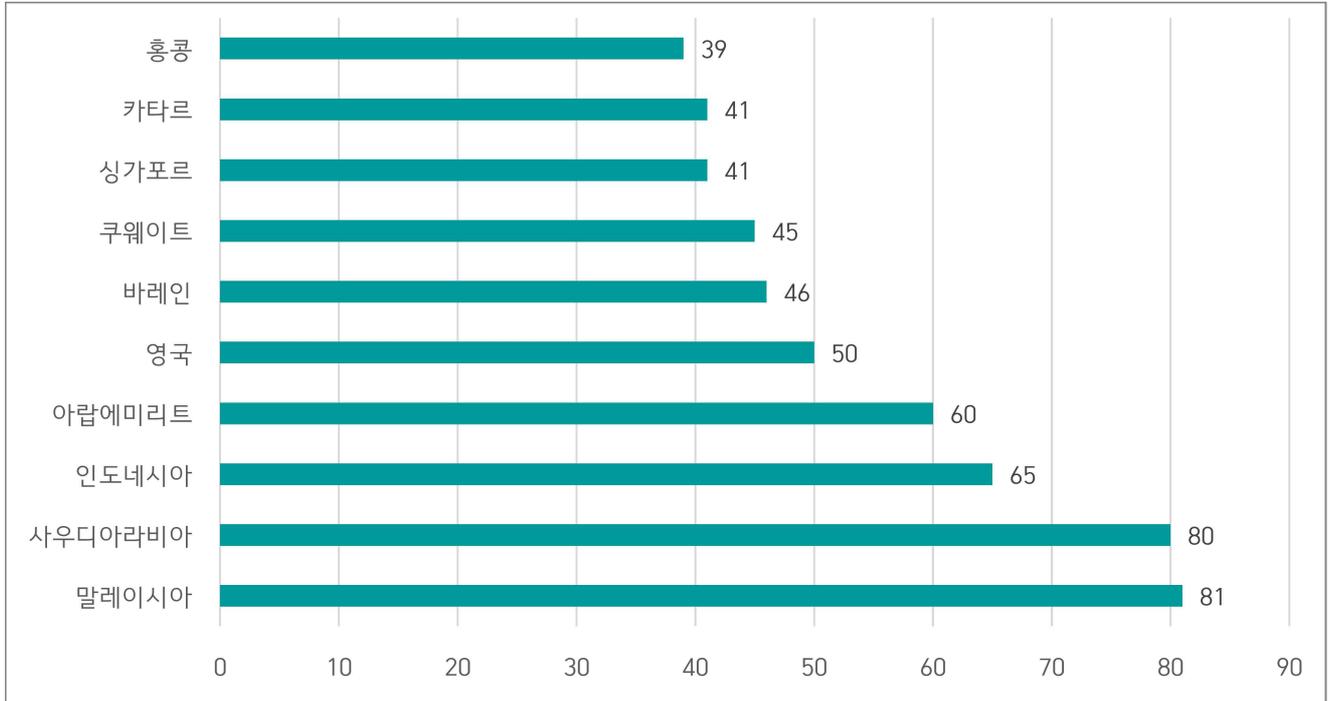
* sukuk: 샤리아(이슬람의 법 체계)를 준수하는 금융 증서로,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나타내며 서구 금융의 채권과 유사함

** tawarruq는 후불로 물건을 판매한 후, 후불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현금으로 다시 구매하는 것을 의미함

또한 영국은 펀드 운용에 있어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 중 하나임. 이는 많은 이슬람 금융 기관이 영국을 사업 근거지로 선택하고 시장 전망을 모색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임. 영국에 기반을 둔 이슬람 펀드의 운용 자산은 2023년 3월 기준 총 2억 8,060만 달러(2억 2,620만 파운드 상당)이며, 이는 4개의 액티브 펀드에 해당함. 영국은 이슬람 뮤추얼 펀드 업계에서 업계 선두주자인 룩셈부르크와 아일랜드, 케이맨 제도, 저지섬과의 경쟁에 직면해 있음.

영국은 최근(2021년 자료) 글로벌 이슬람 금융 핀테크(GIFT) 지수에서 50점으로 5위를 차지했음. 영국은 이슬람 핀테크를 지원하는 환경을 구축한 최초의 서구 국가로, 2021년 말까지 유럽에는 68개의 이슬람 핀테크 기업이 있었으며, 이 중 45개 기업이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음. (자세한 내용은 그림 17 참조)

그림17: 2021년 GIFT 지수 상위 10개국



(출처:Global Islamic FinTech Report 2022)

핀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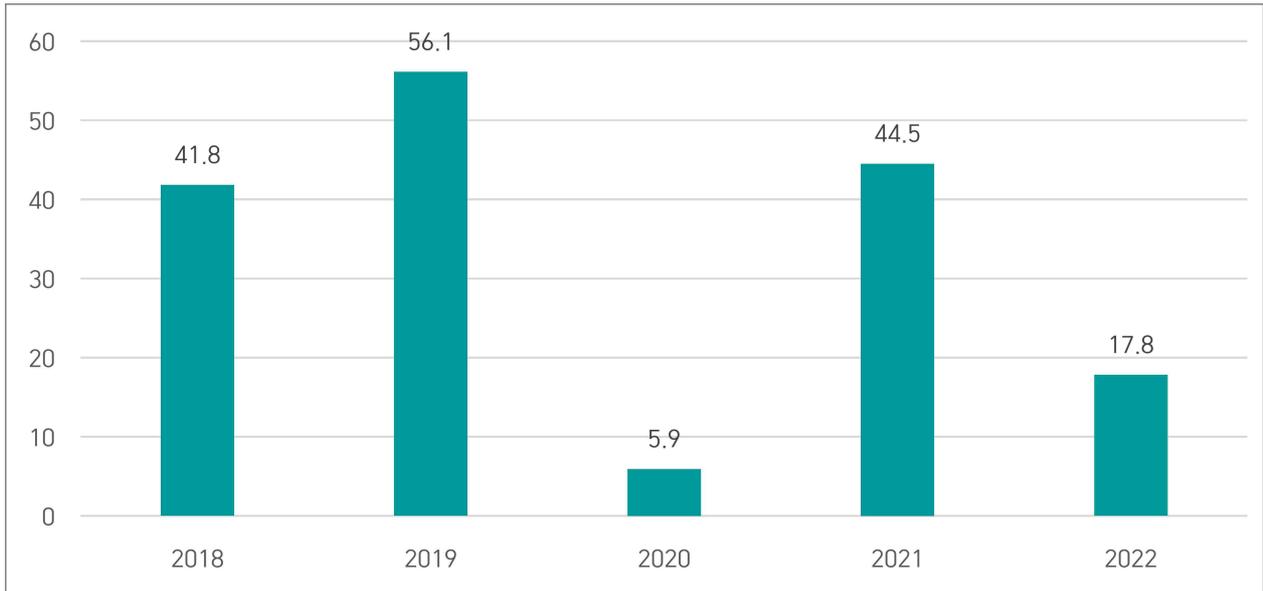
2023년 첫 11개월 동안 영국은 핀테크 투자 유치액은 32억 달러로 미국(186억 달러)에 이어 전 세계 2위를 차지했으며, 인도(25억 달러)를 앞질렀음. 이러한 투자는 런던의 풍부한 인재풀과 전문성, 영국 전역에 존재하는 핀테크 센터 네트워크, 강력한 벤처 캐피탈 기반, 스타트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테크 시티와 같은 허브와 결합하여 영국이 글로벌 핀테크 선도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했음. Innovate Finance에 따르면 영국의 핀테크 산업은 1,600개의 회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76,0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음.

영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핀테크 투자 대상국이며, 여전히 유럽에서 가장 매력적인 핀테크 투자 대상국으로 자리잡고 있음. 하지만 급변하는 시장 상황, 고금리, 주가 하락 압력,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핀테크 부문에 대한 투자는 2021년 325억 파운드(445억 달러 상당)에서 2022년 144억 파운드(178억 달러 상당)로 56% 가까이 감소했다고 KPMG는 밝혔음(그림 18 참조). 이러한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여전히 유럽 핀테크 투자의 중심에 있으며, 영국 핀테크 기업은 나머지 EMEA 지역의 핀테크 기업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자금을 유치하고 있음. EMEA에서 가장 큰 핀테크 거래 10건 중 5건이 영국에서 이루어졌음.

2022년 영국의 M&A, 사모펀드, VC 핀테크 거래는 593건으로 2021년 724건보다

감소함. 그동안 핀테크의 주요 VC 시장은 미국이었으며, 영국이 그 뒤를 이어 가고 있음. 2023년 11월 기준, 영국의 핀테크 스타트업은 26억 파운드(32억 달러 상당)를 유치하며 150억 파운드(186억 달러 상당)를 유치한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하였음.

그림18: 영국의 총 핀테크 투자 유치 활동, 거래 규모, \$bn



(출처: TheCityUK calculations based on KPMG data)

KPMG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영국의 핀테크 투자는 46억 파운드(57억 달러 상당)로 2022년 같은 기간의 108억 파운드(133억 달러 상당)에서 57% 감소하였음. 높은 인플레이션, 금리 상승, 지정학적 요인(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지속적인 분쟁), 기술 부문의 어려움(주가 하락 및 지속적인 투자처 부족) 등의 요인이 투자 수요를 약화시켰음. 2023년 초 미국 은행 몇 곳이 파산한 것도 2023년 상반기에 많은 투자자들을 신중하게 만든 것에 영향을 미침.

해양 산업 분야

영국의 해양 산업 분야는 화물의 운송을 통해 세계 경제가 돌아가는 데 필수적인 국제 해운 산업에 서비스를 제공함. 런던은 은행, 보험, 선박 중개, 법률 서비스, 회계 서비스, 선급, 교육 및 출판 등 국제 해운 업계에 광범위한 금융 및 관련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컨설팅 회사인 Menon Economics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런던은 해운, 금융 및 법률, 해양 기술, 항만 및 물류, 매력도 및 경쟁력 등 5가지 측정 항목에서 세계 3위의 해양 중심지로 선정되었음(그림 19). 특히 런던은 '금융 및 법률'과

'매력도 및 경쟁력' 지표에서 2위를 차지했는데, 이는 런던이 금융 및 관련 전문 서비스 분야에서 특히 강점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임.

그림19: 항목별 주요 해양 도시, 2022년

	종합 순위	해운	금융 및 법률	해양 기술	항만 및 물류	매력도 및 경쟁력
1	싱가포르	아테네	뉴욕	싱가포르	상하이	싱가포르
2	로테르담	싱가포르	런던	오슬로	로테르담	런던
3	런던	도쿄	도쿄	부산	싱가포르	코펜하겐
4	상하이	상하이	오슬로	런던	홍콩	로테르담
5	도쿄	함부르크	파리	상하이	광저우	오슬로

(출처:Menon Economics)

영국의 선박 중개업체는 선주, 용선자 및 기타 관련 당사자를 연결하는 국제 해운 사업의 중심에서 활동하고 있음. 선박 중개업체는 실물 및 파생상품 계약의 거래와 결제를 위한 세계 유일의 독자적인 해상 시장 정보 제공처인 발틱 거래소(Baltic Exchange)를 통해 대표되고 있음. 발틱 회원사들은 또한 전 세계 신조선 및 중고선 톤수의 절반 이상을 매매하는 데 관여하고 있음.

인프라 투자

영국 정부는 2020년에 국가 인프라 전략을 발표하면서 2025년까지 영국이 탄소 순배출 제로를 달성하고, 정책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여 영국 인프라에 대한 민간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인프라 혁신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음.

이에 더해 영국 인프라 은행(UiB)이 민간 부문과 지방 정부에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재원을 제공하기 위해 2021년에 설립되었음. 이 은행은 120억 파운드의 초기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대 100억 파운드의 보증을 발행할 수 있고 2023년 3월까지 통신, 에너지, 수자원, 교통 분야에서 11건의 프로젝트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음.

그러나 영국 인프라 은행의 설립 외에도 인프라 개발에 필요한 막대한 규모의 민간 자금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정책과 체계적인 규제 시스템이 필요하며, 민간 부문은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임. 예를 들어 에너지, 공공서비스, 디지털 인프라 분야의 프로젝트 대부분은 민간 자금으로 조달되어 왔음. 향후 몇 년 동안 인프라 파이프라인의 거의 50%가 민간 부문

에서 자금을 조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금융 서비스 부문은 이러한 민간 자금 조달의 핵심 주체이며, 연기금과 보험사는 향후 10년간 영국의 인프라에 1,500억 파운드에서 1,900억 파운드를 투자할 것으로 예상됨. 보다 넓게는 영국에 기반을 둔 금융 및 관련 전문 서비스 산업이 민간 투자자와 인프라 투자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할 것임. 이 업계는 자본뿐만 아니라 법률 및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여 인프라 투자를 지원하고 있음.

세계적인 전문 서비스 제공자로서 런던과 영국의 역할

법률 서비스

영국은 유럽에서 가장 큰 법률 서비스 시장(2022년 437억 파운드, 540억 달러 상당)이며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시장임. 영국에는 약 40개 지역에서 200개 이상의 외국 로펌이 활동하고 있으며, 세계 상위 40개 로펌이 모두 런던에 오피스를 두고 있는 등 다양한 국제 로펌의 본거지로 자리잡았음. 2021/22년 변호사 수 기준 상위 20개 로펌 중 8개 로펌이 영국에 주요 사업 기반을 두고 있으며, 매출 상위 20개 로펌 중 7개 로펌이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음. 런던의 대형 국제 로펌은 전체 변호사의 42%를 해외에 두고 있고 영국의 법률 서비스 순 수출액은 2022년에 57억 파운드(70억 달러 상당)에 달했음. 또한 영국은 LawTech의 글로벌 허브가 되었으며 유럽 내 모든 LawTech 스타트업의 43%가 영국에 소재하고 있음.

법률 서비스 분야에서 영국의 위치는 전 세계 320개 지역 중 약 27%가 법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영국 보통법의 국제적 위상에 의해 도움을 받고 있음. 한편, 국제 분쟁 해결의 중심지로서 영국의 명성은 상업적 당사자들이 계약에 영국법을 적용하는 이유이기도 함.

회계 서비스

영국은 전 세계 회계 서비스 제공에 있어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많은 대형 글로벌 기업이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음. 예를 들어, '빅4' 회계법인인 딜로이트, EY, KPMG, PwC는 모두 영국에 사무소와 사업체를 두고 있음. 2022년 영국의 회계 서비스 순 수출액은 총 17억 파운드(21억 달러 상당)에 달함.

경영 컨설팅

경영 컨설팅은 최근 몇 년간 영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 중 하나임. 영국 경영 컨설팅의 주요 특징은 규모 면에서 소수의 대형 및 중견 국제 기업에 활동이 집중되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특정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보유한 다수의 소규모 전문 기업이 존재한다는 점임.

영국은 경영 컨설팅 서비스의 주요 수출국으로 TheCityUK보다 더 넓은 범위의 개념을 사용하는 영국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경영 관리 및 경영 컨설팅의 순 수출액은 총 253억 파운드(312억 달러 상당)에 달했음.

금융 서비스 교육 및 훈련

영국에 기반을 둔 다양한 기관에서는 국제적으로 금융 및 관련 전문 서비스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고 있음.

대학과 경영대학원은 영국으로 유학생을 유입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실제로, Universities UK International 최근 자료에 따르면 2021/22년 영국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679,970명으로 2021/22년 전체 학생 수의 23.8%를 차지했음. 2023년 QS 순위와 관련하여 3개의 영국 대학이 회계 및 재무 과정에 특화된 세계 상위 10개 고등 교육기관에 속해 있으며, 7개의 영국 대학이 유럽에서 회계 및 재무 과정으로 명성이 높은 상위 10개 고등 교육기관을 이끌어 가고 있음.

거래소, 전문 교육 회사, 산업 협회 등 다양한 주체에서도 전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함. 예를 들어 런던정치경제대학교(LSE)는 시장 참가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 및 아카데미를 제공하고 있음. UK Finance는 실무자를 위한 규정 준수, 리스크 관리, 프레젠테이션 기술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광범위한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1년 내내 제공함. 학습 허브는 양질의 다양한 온라인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며, 심층적인 IF/ABL 인증 프로그램을 주최하기도 함. 또한 금융 전문가를 위해 특별히 구축된 종합적인 맞춤형 동영상 제공 학습 플랫폼과 글로벌 규제 및 금융 범죄 규정 준수 커뮤니티를 위한 주요 전문 기관과도 파트너십을 맺었음. 최근 몇 년 동안 지속 가능한 금융 관련 이니셔티브도 다수 출범되고 있음. 녹색금융협회는 금융 전문가들이 기후 관련 리스크와 기회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를 갖추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녹색금융 교육 헌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 및 전문 서비스 부문에 지속 가능한 금융 원칙과 관행을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또한 The Chartered Banker Institute는 기후 변화와 그 영향, 기후 리스크, 다양한 부문의 친환경 상품 및 서비스의 발전,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금융 부문의 역할에 대한 학습자의 지식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녹색 및 지속 가능한 금융 인증서를 제공하고 있음. 금융 서비스 기술 위원회는 영국 금융 서비스 부문을 대표하는 독립적이고 초당파적인 회원 주도 기구로, 기술 관련 업무를 담당함. 2022년 기준 42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금융 서비스 업계 인력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30만 명 이상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융 서비스 분야의 기술 공급을 확대하고 다양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한편, 영국에 기반을 둔 전문 기관은 전 세계 회계 기술 개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재무보고위원회(Financial Reporting Council)의 자료에 따르면 영국과 아일랜드의 주요 회계 기관 7곳의 회원 수는 전년 대비 2.1% 증가한 약 40만 명에 달함. 이러한 수치는 글로벌 기준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차세대 비즈니스 리더를 위한 교육의 장을 제공하고 있음.

결론

영국의 금융 및 관련 전문 서비스 산업은 많은 국제 시장(외환 거래 및 해외 은행 대출 등)에서 계속해서 선두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금융, 법률, 회계 및 경영 컨설팅 서비스 거래에서 매우 두드러진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음. 또한 런던이 국제 금융 허브로 잘 알려진 가운데, 영국 산업은 녹색 금융, 핀테크, 이슬람 금융과 같은 새롭고 전문적인 시장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혁신하고 재창조할 수 있는 전문성과 역량 덕분에 지속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해오고 있음.

국제 프로그램

TheCityUK의 국제 전략은 2021년 9월 출범 후 5년 이내에 영국을 세계 최고의 국제 금융 중심지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영국의 산업계, 정부, 규제기관이 협력하여 영국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함:

영국의 IFC를 더 개방적이고 경쟁력 있게 만들기 위해:

- 중앙 및 지방 정부 전반에 걸쳐 지원되는 새롭고 혁신적인 투자 전략을 수립하고 영국 안팎의 투자 심사 프로세스가 효율적이고 투명하며 정책 목표에 부합하도록 보장함으로써 국내 투자를 촉진
- 비즈니스 비자 절차 간소화를 통한 글로벌 인재 확보
- 혁신을 주도하고 핀테크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에 대한 유연하고 적극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

주요 글로벌 금융 및 관련 전문 서비스 분야에서 영국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 선진국 및 신흥 시장과의 무역 자유화로 상업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분야에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
- 가능한 모든 범위의 무역 정책 도구를 활용하여 서비스 무역을 지원하는 디지털 경제 협정과 같은 규제 협정을 체결
- 영국에서 발행하는 라이선스의 해외 공인성 확보 및 노동 이동성 제고

미래 수요를 중심으로 영국을 새로운 글로벌 시장으로 구축하기 위해:

- 금융 및 전문 서비스 데이터에 위한 글로벌 허브 구축
- 지속 가능한 금융의 세계적 리더로 발돋움
- 글로벌 성장을 위한 자본 조달을 원하는 글로벌 기업을 위한 선도적 플랫폼 구축
- 리스크 관리 및 자문 서비스를 위한 글로벌 센터

다음 아래의 전략은 영국이 세계 최고의 국제 금융 중심지가 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정책 권고 사항을 제시하고 있으며, TheCityUK는 성과측정 시스템과 일련의 지표를 통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업계의 성공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음. 또한 업계의 국제적 참여의 모든 영역에 걸쳐 제공되고 있음.

다자간 무역 및 투자 정책: TheCityUK는 보다 통합된 글로벌 서비스 시장을 형성하기 위해 WTO 및 OECD와 같은 기관을 비롯한 다양한 정부 간 조직, 해외 기업 및 파트너 연합과 협력하고 있음

양자 간 무역 및 투자 정책: 국가 및 지역별 시장 자문 그룹과 인도-영국 금융 파트너십을 통해 영국과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 간의 금융 및 관련 전문 서비스 관계를 구축함. 이 그룹은 미국, 유럽, 일본, 중국, 인도, 아세안, 유라시아, 중동 및 아프리카와의 무역 및 투자를 촉진하는 정책을 지원하는 산업 플랫폼을 제공함. 또한 영국에 기반을 둔 산업이 지속 가능한 금융 및 디지털 거버넌스와 같은 미래 지향적인 주요 이슈를 포함하여 주요 국제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포럼을 개최함. 또한 영국 재무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영국-스위스 금융 서비스 상호 인정 협정, EU-영국 금융 규제 포럼, 중국 및 인도와의 경제 및 금융 회담, 일본 및 싱가포르와의 금융 회담 등 주요 양자 간 주요 사안에서 업계 파트너로서 역할을 하는 등 주요 상대국과의 긴밀한 규제 협력을 촉진하고 있음.

일관성 있는 규제: 금융 및 관련 전문 서비스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무역 장벽 중 일부는 기본적으로 규제임. 영국은 국제 규제 전략 그룹과 TheCityUK의 국제적 활동을 통해 금융 서비스 우대 협정, 전문 기술 자격의 상호 인정, 녹색 금융 공개 기준에 대한 보다 전 세계적으로 일관된 규칙을 통해 글로벌 규제 일관성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TheCityUK는 현재 영국이 각국의 규제 체제에 대해 상호 신뢰와 인정을 중심으로 구성된 양자 간 협정을 보다 광범위하게 활용하여 국제 규제 일관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분야별 지원: 법률 서비스 그룹과 이슬람 금융 그룹을 포함한 부문별 자문 그룹을 통해 영국은 해당 부문에서 영국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지속적인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영국의 전문성을 홍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음.

국제 발전: TheCityUK는 회원사, 업계 파트너 및 무역 협회와 협력하여 신흥국 정부가 자국의 금융 및 전문 서비스, 비즈니스 환경을 국제 법률 및 법정 기준과 모범 사례에 맞게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영국 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함. 대표적인 국제 금융 중심지인 영국과 영국의 금융 및 관련 전문 서비스 산업은 파트너 국가가 자국의 금융 및 전문 서비스 생태계를 발전시키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분야별 전문 지식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협력은 결국 해당 국가와 지역 경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고 지속 가능한 포용적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함. 최근 이니셔티브에는 베트남, 나이지리아, 케냐, 우크라이나의 프로젝트가 포함됨.

참고문헌

Association of Foreign Banks

국제결제은행(BIS)

영국 중앙은행

Barclay Hedge

영국 사모펀드 및 벤처캐피탈협회

Chartered Banker Institute

CEIC data

City of London Corporation

국제기후채권기구(CBI, Climate Bonds Initiative)

Dealroom.co

Financial Reporting Council

Financial Services Skills Commission

Fitch Ratings

FTSE Russell

Green Finance Institute

영국 재무부(HM Treasury)

홍콩·상하이 은행(HSBC)

임페리얼 경영대학

Innovate Finance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Underwriting Association of London

Invest Europe

Investment Company Institute

KPMG

Lloyd's of London

런던금시장연합회
(London Bullion Market Association)

London Market Group

런던증권거래소

Menon Economics

영국 국가인프라위원회(NIC)

New Financia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ONS)

PitchBook

PwC

QS Top Universities

Swiss Re Institute

TheCityUK

The Investment Association

UK Finance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UNCTAD)

Universities UK International

US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Willis Towers Watson

세계거래소연맹(World Federation of Exchanges)

Z/Yen